

#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 제 4 교시

성명

수험번호

3

1

1. 다음 대화에서 스승이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스승님,  
인의예지(仁義禮智)는  
인간이 가진 본성입니까?

1

인의예지는 실천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네. 따라서 인간의 본성으로  
볼 수 없다네.

2

그렇다면  
인간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3

선을 즐기고 악을 싫어하며, 덕을  
좋아하고 더러움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의 기호(嗜好)라네.

4

- ① 선악(善惡)의 분별에서 벗어나 자연에 따라야 한다.
- ② 제도와 예법을 지켜 악한 본성을 교화(敎化)해야 한다.
- ③ 마음이 가진 경향성에 따라 사단(四端)을 확충해야 한다.
- ④ 모든 욕구를 제거하여 마음을 깨끗이 비워야[心齋] 한다.
- ⑤ 무명(無明)에서 벗어나 팔정도(八正道)를 실천해야 한다.

2. 다음 가상 편지를 쓴 현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에게

인간의 실존과 불안에 대해 고민하는 자네의 편지를 잘 읽어 보았네.  
내 생각에 인간이란 자유로운 결단을 통해 실존에 이르기 위한 세 단  
계를 거친다네. 이는 심미적, 윤리적, 종교적 단계로 인간은 이러한 과  
정을 거쳐 신 앞에 단독자로 서게 된다네. 이로써 단독자는 모든 죄가  
전적으로 자신의 오만한 행위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뉘  
우치게 된다네. ...(후략)...

- ① 인간의 보편적 본질을 확립하여 한계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
- ② 신에 의지하려는 주체적 결단을 통해 절망을 극복해야 한다.
- ③ 실존적 상황에서 합리적 이성만으로 주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 ④ 종교적 단계를 극복함으로써 윤리적 실존 단계에 도달해야 한다.
- ⑤ 개별성에서 벗어나 대중과 연대하여 실존적 불안을 극복해야 한다.

3. 다음 동양 사상가의 주장으로 옳은 것은? [3점]

활쏘기를 배운다면 화살을 끼우고 활시위를 당겨 표적을 맞춰야만 하고, 글씨 쓰기를 배운다면 종이를 펴고 붓을 잡아 글씨를 써야만 한다. 이렇듯 모든 공부는 행(行)하지 않으면서 공부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니 공부의 시작은 본래 행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만물의 이치[理]는 마음[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으니 내 마음의 이치를 구하고 앎과 행을 일치시켜야 한다.

- ① 내면의 참된 앎을 실천하여 그 앎을 완성해야 한다.
- ② 인식으로서의 앎을 실천으로서의 행보다 중시해야 한다.
- ③ 학습을 통해 양지(良知)를 획득하여 실천해 나가야 한다.
- ④ 사물에 내재한 이치를 근거로 마음의 본체를 회복해야 한다.
- ⑤ 도덕적 실천을 위해서는 마음 밖의 이치를 궁구(窮究)해야 한다.

4. 다음 고대 서양 사상가의 주장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쾌락은 행복한 인생의 시작이자 끝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쾌락을 우리에게 타고난 첫 번째 선이라고 인식하며, 선택하고 기피하는 모든 행동을 쾌락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 현자(賢者)는 삶을 도피하려고 하지도 않으며, 삶의 중단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삶이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삶의 부재가 어떤 악으로 생각되지도 않기 때문이다.

< 보 기 >

- ㄱ. 세계 시민으로서 주어진 공적인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 ㄴ. 정념으로부터 해방된 상태[apatheia]를 추구해야 한다.
- ㄷ. 자연적이지 않은 욕구를 극복하여 절제된 생활을 해야 한다.
- ㄹ. 감각적 쾌락보다 정신적이고 지속적인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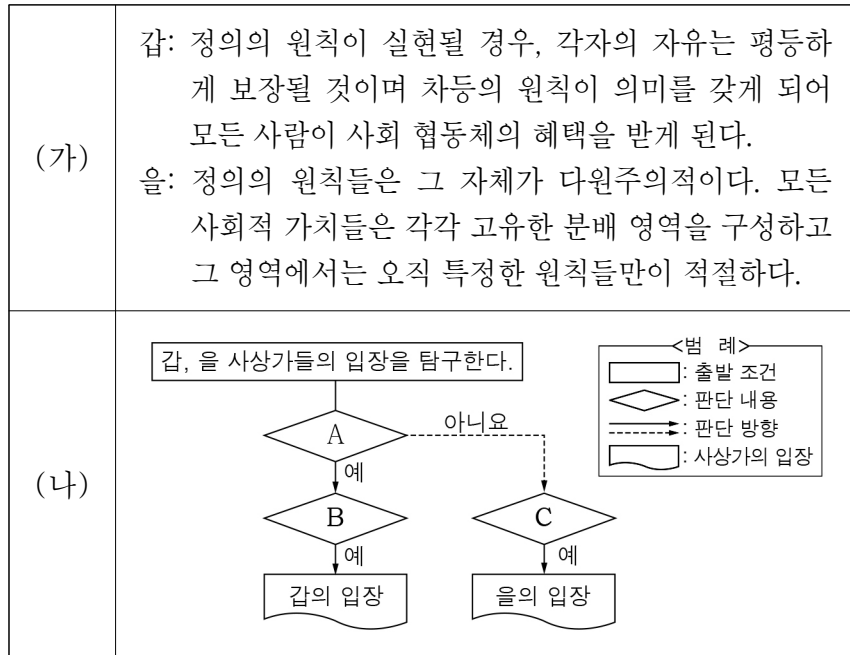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5. 근대 서양 사상이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 이성만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구별하는 능력이다. 감각은 종종 우리를 기만하므로,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것은 모두 거짓으로 간주하고 전혀 의심할 수 없는 것을 찾아야 한다.  
을: 이성은 존재나 사실의 참과 거짓을 발견하는 능력이지만 덕과 악덕을 구별할 수는 없다. 덕과 악덕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은 그것들이 일으키는 어떤 인상 또는 감정에 의해서이다.

- ① 갑은 방법적 회의를 통해 진리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
- ② 갑은 진리 탐구에서 감각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본다.
- ③ 을은 사회 전체 행복에 유용한 행위가 도덕적인 것이라고 본다.
- ④ 을은 모든 사람들이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자연에 대한 경험적 탐구가 참된 지식의 근원이라고 본다.

6.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 ~ C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① A: 가상적 상황에서 합의된 정의의 원칙을 따라야 하는가?
- ② A: 경제적 불평등은 정의로운 사회에서도 존재할 수 있는가?
- ③ B: 차등의 원칙이 소득의 재분배를 허용할 수 있는 조건인가?
- ④ B: 모든 사람들은 동등한 기본적 자유를 최대한 누려야 하는가?
- ⑤ C: 상이한 사회적 가치는 상이한 기준에 의해 분배되어야 하는가?

7. 중세 서양 사상가 갑, 근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모든 것은 완성을 향한 욕구를 지니고 있으며, 이들을 움직이게 하는 궁극적 목적은 자기 자신의 완전한 선, 즉 신이다. 인간은 오직 신과 하나가 되고 그의 무한한 선을 향유할 때에 지복(至福)을 누릴 수 있다.

을: 모든 것은 무한한 실체인 신의 유한한 양태이며, 신의 본성의 필연성으로부터 생겨난다. 우리가 이성의 인도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자신의 본성에 따라 행위하게 되며, 완벽한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

< 보 기 >

- ㄱ. 갑은 자유 의지를 발휘하여 신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본다.
- ㄴ. 을은 인간과 사물은 인과법칙의 지배를 받아 움직인다고 본다.
- ㄷ. 갑, 을은 인간이 현세에서는 완전한 행복에 이를 수 없다고 본다.
- ㄹ. 갑, 을은 이성을 통하여 신적 질서를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8 ~ 9] 갑, 을은 고대 서양 사상가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갑: 철학적 지혜는 학문적 인식과 직관적 지성이 합쳐진 것이고, 실천적 지혜는 인간의 선이나 헤아림의 대상이 되는 것에 관여한다. 따라서 실천적 지혜는 품성적 덕을 위한 필수 요소가 된다.

을: 철학적 지혜를 갖춘 철인(哲人)이 왕이 되거나 왕이 철학자가 되기 전에는 국가는 결코 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왜냐하면 정치권력과 철학은 따로 가지 않고 합쳐져야 하기 때문이다.

8.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갑은 의지의 나약함이 비도덕적 행동의 원인이라고 본다.
- ② 갑은 중용의 반복적 실천을 통해 품성적 덕이 형성된다고 본다.
- ③ 을은 정의란 지혜, 용기, 절제가 조화를 이룬 상태라고 본다.
- ④ 을은 이상 국가에서 모든 계층의 재산이 공유되어야 한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덕을 갖추어야 한다고 본다.

9. 다음을 주장한 현대 서양 사상가가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적인 성과나 결과보다는 개선, 진보의 과정이 의미 있는 것이다. 건강을 예로 든다면, 최종적으로 고정된 목적으로서의 건강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으로서의 건강의 개선이 목적이자 선(善)이다. 정직, 근면, 절제, 정의도 마치 그것들이 획득해야 할 고정된 목표를 표현하는 것인 양 소유되어야 할 선들이 아니다. 그것들은 경험의 질적인 변화의 방향이다.

- ① 도덕적 선은 고정되지 않고 변화하고 성장함을 간과한다.
- ② 최고선에 대한 관념이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됨을 간과한다.
- ③ 유용하지 않은 지식도 그 자체로 가치가 있음을 간과한다.
- ④ 이상 세계를 탐구함으로써 진리를 찾을 수 있음을 간과한다.
- ⑤ 도덕적 지식은 보편적 이성을 통해 인식되어야 함을 간과한다.

10. 그림은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치란 바로 잡는 것입니다[政者正也]. 군주가 바르게 통솔한다면 누가 따르지 않겠습니까. 이는 군자의 덕이 바람이고 소인의 덕은 풀인즉, 풀 위로 바람이 불면 풀은 저절로 쓰러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정치란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不忍人之心]을 가지고,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다스림을 펼치는 것입니다. 이를 시행한다면 천하를 다스리는 일은 손바닥 위에서 물건을 움직이듯 쉬울 것입니다.



갑



을

- ① 갑은 군주가 어진 마음[仁]으로 백성을 보살피야 함을 강조한다.
- ② 을은 선한 본성을 거스르지 않는 무위(無爲)의 정치를 강조한다.
- ③ 갑은 을과 달리 사회 질서 확립을 위해 본성의 변화를 강조한다.
- ④ 을은 갑과 달리 통치자가 백성을 덕으로 감화시켜야 함을 주장한다.
- ⑤ 갑, 을은 정명(正名)을 근거로 역성혁명(易姓革命)을 주장한다.

11.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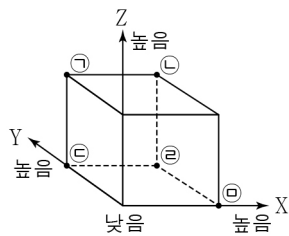
나는 다양한 사회 집단 속에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타인은 내가 속한 집단의 모습을 통해 나의 정체성을 확인한다. 나는 형제이고, 사촌이고, 손자이고, 이 가계와 저 마을의 구성원이다. 그것들은 나의 본질의 한 부분으로서 나의 책무와 의무를 정의한다. 그런데 어떤 사상가는 “공동체는 단지 개인이 스스로 선택한 좋은 삶을 실현하는 무대이고,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한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질서를 제공하기 위해 존립한다.”라고 주장한다. 나는 이 사상가의 주장이 ‘㉠’은 점을 간과한다고 생각한다.

- ① 공동체는 원자적 개인들의 단순한 결합체에 불과하다.
- ② 개인은 공동체를 벗어나야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
- ③ 개인의 불가침적인 권리는 공동선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 ④ 공동체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다.
- ⑤ 개인의 정체성은 공동체의 역사와 가치를 통해 형성된다.

12. 갑 사상가의 입장에 비해 을 사상가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 ㉥ 중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본성은 악하지만 후천적인 작위(作爲)에 의해 교화시켜 바로 잡을 수 있다. 본성이 없으면 작위를 가할 데가 없고, 작위를 가하지 않으면 본성은 저절로 아름다워질 수 없다.

을: 본성을 닦으면 덕(德)으로 돌아가고, 덕이 지극해지면 도(道)와 같아진다. 이것이 곧 텅 빈 허(虛)이고, 마음을 비워 광대함을 포용하면 곧 대자연의 순리와 같아진다.



- X: 시비(是非)의 분별을 강조하는 정도
- Y: 본성과 일치되는 삶을 강조하는 정도
- Z: 예의와 법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정도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13. (가), (나)의 사회사상 중 적어도 한 사상의 입장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국가 기능의 확장은 자본주의 경제 전체가 붕괴되는 것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다. 따라서 국가는 이자율을 조정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정책을 통해 유효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

(나) 국가는 계획 경제를 통해 사적 소유자가 그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생산과 복지에 공헌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점진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사회주의 이상을 추구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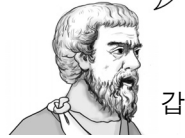
< 보 기 >

- ㄱ.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주장하는가?
- ㄴ. 복지 제도의 축소를 통한 효율적 자원 배분을 강조하는가?
- ㄷ. 평등의 실현을 위해 생산 수단의 완전한 공유를 주장하는가?
- ㄹ. 자유로운 의회 활동을 통한 사회주의 이념의 실현을 강조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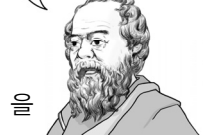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14. 그림은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을이 갑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진리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록 존재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다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인간은 무지를 자각하고 영혼을 수련함으로써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대화를 통해 다른 사람이 진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 ① 유덕한 삶이 인간의 행복과 무관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 ② 개인의 주관적 신념이 옳고 그름의 척도임을 모르고 있다.
- ③ 감각적 경험을 진리 탐구의 근거로 삼아야 함을 모르고 있다.
- ④ 사회적 유용성이 도덕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함을 모르고 있다.
- ⑤ 이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절대적 진리가 있음을 모르고 있다.

15. (가) 사상가의 입장에서 (나)와 같이 주장한 사상가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양(陽)이 움직이면[動] 이(理)가 그 움직임에 타는 것이지 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며, 음(陰)이 고요하면[靜] 이가 고요함에 타는 것이지 이가 고요한 것이 아니다. 기(氣)는 유위(有爲)이고 이는 무위(無爲)이다.
(나)	‘태극(太極)이 움직여 양을 낳는다.’는 말은 이가 움직여 기가 그에 따른다는 것을 뜻한다. …(중략)… 이가 움직이기 때문에 자연히 양을 낳고 또한 음을 낳는 것이다.

- ① 기가 발하면 이가 기에 탈 수 있음[乘]을 간과한다.
- ② 사단은 이가 발한 것으로 본래 선한 것임을 간과한다.
- ③ 칠정은 기가 발한 것으로 악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
- ④ 사단과 칠정이 발생하는 연원이 다르지 않음을 간과한다.
- ⑤ 순선한 이는 귀(貴)하고 기는 천(賤)하다는 것을 간과한다.



16. (가), (나)에 제시된 이상 사회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노동은 매일 6시간으로 제한된다. 성인 남녀 모두 생산적 노동에 종사하며, 남은 시간은 정신적 오락이나 연구에 사용된다. 이 사회에서 시민들은 빈곤도 없고, 사치나 낭비도 없다.  
(나) 노동은 생활을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삶의 기본적 욕구가 된다. 계급 간 대립과 계급 그 자체가 사라지면서 개인이 노예처럼 분업에 예속되는 상태가 사라진다.

— < 보 기 > —

ㄱ. (가)는 노동 생산성의 증대로 사유 재산이 풍족한 사회이다.  
ㄴ. (나)는 계급이 소멸되어 인간 소외가 극복되는 사회이다.  
ㄷ. (가)는 (나)와 달리 각자의 능력에 따라 분배되는 사회이다.  
ㄹ. (가), (나)는 생산과 소유에 있어 평등이 실현된 사회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7.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에서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도덕 원리와 행복 원리를 구별하는 것은 양자의 대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순수한 실천 이성은 행복에 대한 요구를 포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의무가 문제가 될 때는 행복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려고 할 뿐입니다.

을: 제 생각은 다릅니다. 행복 원리가 도덕 원리가 되어야 하며, 이것이 공리의 원리입니다. 공리의 원리는 이해 당사자들에게 행복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경향성에 따라 각각의 행위를 승인하거나 부인하는 원리를 의미합니다.

갑: 제 생각에 당신은 \_\_\_\_\_ ㉠ \_\_\_\_\_

- ① 행위의 결과가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임을 모르고 있습니다.  
② 유용성의 원리가 도덕적 준칙이 될 수 있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③ 도덕은 다른 무엇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④ 모든 이성적 존재는 행복을 필연적으로 욕구함을 모르고 있습니다.  
⑤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행복이 조화되어야 함을 모르고 있습니다.

18. 다음 한국 불교 사상가의 입장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일체의 법(法)은 본래부터 말이나 글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어서 결국 차별 없이 평등하게 되고, 변하거나 달라지는 것도 없는 것이어서 오직 일심(一心)일 뿐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체의 법을 우주 만유의 본체[眞如]라 이르는 것이다.

— < 보 기 > —

ㄱ. 여러 종파의 갈등을 더 높은 차원에서 통합해야 하는가?  
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불변하는 실체로 보아야 하는가?  
ㄷ. 나와 너, 나와 세계를 분별하지 않는 진리를 추구해야 하는가?  
ㄹ. 서로의 다름을 제거하고 하나의 관점으로 통일해야 하는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9. 갑, 을은 근대 한국 사상가이다.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서양 사람의 말과 글에는 순서가 없으며, 한울님을 위하는 단서[端]가 없고 다만 제 몸만을 위하여 빌 따름이다. 또한 서양의 학문에는 한울님의 가르침이 없으니 형식은 있으나 자취가 없고, 도(道)는 허무에 가깝다.

을: 서양의 적과 화친할 수 없다는 것은 내 나라 사람의 주장이고, 서양의 적과 화친하자는 것은 적국 쪽 사람의 말이다. 전자를 따르면 옛 문물과 제도를 보전할 수 있지만 후자를 따르면 금수(禽獸)의 나라가 될 것이다.

— < 보 기 > —

ㄱ. 서양 문물을 수용하여 민족을 발전시켜야 하는가?  
ㄴ. 고유 사상과 유·불·도 사상의 조화를 추구하는가?  
ㄷ. 신분에 대한 차별이 철폐된 평등 사회를 실현해야 하는가?  
ㄹ. 성리학적 질서를 바탕으로 민족의 주체성을 지켜야 하는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0.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않은 것은? [3점]

#### 서술형 평가

◎ 문제: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갑: 자연 상태에서는 공통의 권력이 존재하지 않아, 인간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 상태에 놓인다. 이에 인간은 이성의 제언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한 사람 또는 하나의 합의체에 양도한다.  
을: 자연 상태는 비교적 평화로우나, 공통의 법률이 없어 인간은 불안해한다. 이에 인간은 동의를 통해 입법권을 설립하고, 그 사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공통의 법률을 가지려 한다.

◎ 학생 답안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해 보면, 갑은 ㉠ 공통의 권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정의와 부정의의 관념이 존재할 수 없다고 보았으며, ㉡ 인간은 평화를 위해 절대 권력을 인정하는 상호 계약을 맺는다고 주장하였다. 을은 ㉢ 공통의 법률이 없는 상태에서는 자연적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 국가의 정치권력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면 저항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갑, 을은 공통적으로 ㉤ 국가를 자신의 생명 보존을 위한 합의의 산물로 보았다.

① ㉠    ② ㉡    ③ ㉢    ④ ㉣    ⑤ ㉤

#### ※ 확인 사항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